

원희룡 장관, “불법과 타협 없다”

- 포항 운송거부 현장 ·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방문, 조건없는 복귀 촉구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3일차인 12월 6일(화) 오후,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집단운송거부 현장에 이어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방문하고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.
- 원 장관은 앞서 찾아간 집단운송거부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산업 피해와 국민들의 걱정, 비조합원 차주의 어려움 등을 전달하며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다.
 - 이어서 방문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에서는 “국회로 들어가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논의를 해야 진전이 있을 것”이라며 화물연대 지도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결단을 촉구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집단의 힘을 내세운 화물연대의 불법적 행태로 인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, 집단위력행사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”고 하면서,
 - “산업계도 현장 충돌을 막고자 최대한 인내왔으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, 정부는 산업 보호를 위한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”이라고 밝혔다.
 - 면담을 마무리하며 원 장관은 “전과 같이 명분을 주고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”이라는 말과 함께, “조건없는 복귀 후 합법적인 틀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2022. 12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